

불완전 지역패권국 러시아의 탈냉전기 군사적 공세와 그 한계

안 성 규 (安 成 奎) | 정치학 박사, 유럽정책연구소(IES) 방문연구원*

〈국문요약〉

러시아의 패권적 군사적 공세를 우려하는 유럽 내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를 패권 팽창으로 볼 것인가. 러시아는 1995년 군사패권 체제를 출발시켰지만 러시아 자체의 능력은 약했고 체제의 강압성도 문제였다. 이에 따른 불안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러시아는 패권 체제의 내적 강화와 외부 위협에 대한 공세적 억지를 병행했다. 외부 대응 공세엔 서방의 군사력 약화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러시아의 외부 대응에는 본질적 한계가 있었다. 처벌적 억지라는 최대 수준까지 동원했지만 패권 팽창은 능력 밖이었다. 군사패권을 천명하면서도 ‘서방의 위협’ 프레임에 갇힌 러시아는 계속 이에 대응하는 도발적 군사 공세를 취하겠지만 능력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Keywords | 러시아, 불안전 군사패권, 힘의 배분, 억지, 패권 팽창

* 저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공격성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산 정책연구원 편집 주관을 했으며, 중앙일보 러시아 특파원을 역임했다. 현재 벨기에 자유 대학(VUB) 산하 유럽정책연구소(IES, Institute for European Studies)에서 방문연구원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I. 문제 제기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를 우려하는 유럽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심화된 상황이다. “오늘날 러시아는 재(再) 제국화 프로젝트나 적을 위해 하려는 계획에 실질적으로 관여돼 있다”는 주장은 전형적 시각이다.¹⁾ “70년 전 모스크바의 나토에 대한 정책과 대화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적대적 자본주의 국가와 그 블록에 포위돼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뒀다. 오늘날엔 현대 러시아 제국의 힘 유지, 그리고 이를 인접 국가에 전파하기 위해 같은 말을 한다”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²⁾ 이 밖의 여러 연구도 러시아의 공세를 우려하고 있다.³⁾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의 대러 군사 대응 강도는 2014년 웨일즈 정상회담, 2016년 바르샤바 정상회담, 2018년 브뤼셀 정상회담을 거치며 높아갔다.⁴⁾

고조된 유럽의 위협 인식은 러시아의 공세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란 인상을 준다. 실제로 나토는 러시아의 2008년 조지아 침공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며, 2010년 리스본 정상회담은 새로운 전략 개념에서 러시아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발표했다.⁵⁾ 그렇다면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는 최근 들어 강화된 현상인가? 러시아는 왜 그런 행태를 보이는가? 패권 팽창적인가 아니면 방어적인가? 방어적이지만 안보딜레마 상황 때문에 서방의 입장에서만 팽창적이 아닌가?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지만 간단치 않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그 답으로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를 분석,

1) Charles Dick, “Russian Ground Forces Posture Towards the West,” *Russia and Eurasia Programme of Chatam House* (2019), p. 8.

2) Vitalii Martyniuk, “What Does NATO Mean For Eastern Europe Today?” in Róbert Ondrejcsák, Tyler H. Lippert ed., *NATO at 70: Out line of the Alliance Today and Tomorrow* (Bratislava: STRATPOL, 2019), pp. 100-101.

3) 유럽의 관련 최근 글은 다음 참조. Robert Czulda, “Enhanced Forward Presence: Evolution, Meaning and the End Game,” in Róbert Ondrejcsák, Tyler H. Lippert ed., *NATO at 70: Out line of the Alliance Today and Tomorrow* (Bratislava: STRATPOL, 2019).; Wojciech Michnik, “Poland and Transatlantic Security after the Russian-Ukrainian Conflict: A Paradigm Shift?” (Krakow: Jesuit University Ignatianum, 연도 미상).; Vlijar Veebel, “NATO options and dilemmas for deterring Russia in the Baltic States,” *Defence Studies*, Vol. 18, No. 2 (2018).; Vilijar Veebel, Zdzisław Sliwa, “Kaliningrad, the Suwalki gap and Russia’s ambitions in the Baltic Regio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2, No. 3 (2019).

4) NATO, “NATO: Ready for the Future, Adapting the alliance (2018-2019),” pp. 5-24.

5) Sven Sakkov, “Why the Baltics matter Defending NATO’s Northern-Eastern border,” *NDC Policy Brief*, No. 13 (June 2019), p. 1.

공세는 탈냉전 직후 군사패권 체제 구축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러시아는 능력이 제한된 불안정한 지역 패권국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적 공세에 집중했고, 외부 공세는 패권 확장이 아닌 패권 불안정 차단을 위한 억지(deterrence) 차원에서 비롯됐으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외부 공세가 패권 팽창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서방의 긴장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제시한다.

연방 출범 직후부터 지역 패권추구를 숨기지 않은 러시아는 1995년 5월 CSTO 군사 패권 체제를 출범시켰다. CSTO는 CIS 일부 국가가 회원국인 집단 안보조약기구다.⁶⁾ 힘의 배분 측면에서 CSTO는 과거 WTO(바르샤바조약기구) 체제, 현재 나토와 같은 강력한 집단안보기구는 아니다. 그러나 힘의 배분과 관계 없이 CSTO는 러시아의 지역 군사패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었고, 이후 패권체제 유지를 위한 플랫폼으로 작동했다는 점에서 러시아에는 중요한 군사적 장치다. 그런데 이 체제에는 크게 두 가지 약점이 있었다. 우선 체제의 주축인 신생국 러시아의 약점이다. 러시아의 힘의 배분은 약했다. 그런데도 구소련 붕괴 원인이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소련에서 남은 절반 수준의 군사력을 활용해 지역 군사패권 체제를 만들었다. 구소련과 비교해 러시아는 총면적 23.8%, 인구 48.5%, GDP 41%, 산업 잠재력 39.4%, 군사력의 44.6%가 줄었다.⁷⁾ 이런 능력으로 공고한 패권이 구축될 수 없었다. 다른 문제는 CSTO 체제에 강제 편입된 일부 국가들의 문제로 이들 패권에 내재한 균열은 외부의 간섭 통로를 만드는 태생적 약점으로 이후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러시아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두 방향의 군사적 공세를 전개했다. 하나는 자국과 CSTO를 대상으로 한 내적 역량 강화 공세, 다른 하나는 체제 불안을 확대한다고 간주되는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 공세다. 구소련 붕괴 직후 화합 분위기가운데 출발한 체제는 실질적 방해를 받지 않았다. 초기 러시아의 내적 역량 강화 노력이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패권 내부 반발과 외부 위협이 있었지만 약해 체제 유지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나토 확대로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와 맞물려 내재된 문제가 악화되고 외부 관여 강도도 높아지면서 체제 불안정은 높아갔다. 가속되는 불안정에 대응해 군사 공세성의 강도도 높아졌다.

6) CSTO는 영어로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러시아어로 Организация Договора о Коллектив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다. CIS는 독립국가연합이다. 본 연구에서 CSTO는 CIS 국가 가운데 러시아와 군사 동맹 조약을 맺은 나라들을 의미한다.

7)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Москва: Кремль, 2018).

이런 요소를 종합,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를 분석하는데 아래와 같은 분석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본 연구에는 신현실주의(구조현실주의)의 두 이론인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이론과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이론을 상위 이론으로, 위협 균형론과 억지 이론을 하위 이론으로 역내·외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 분석에 적용한다. 방어적 현실주의 이론은 러시아의 세력균형 움직임 분석에 효율적이며 공격적 현실주의는 패권추구 측면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이론이다.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의 위협(threat) 균형론은 위협을 세력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⁸⁾ 따라서 군사 독트린 등에서 군사적 위협을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 러시아 분석에 유용하다.⁹⁾ 러시아는 지역 패권의 불안정을 자극하는 외부 위협에 강한 군사적 공세로 대응했고 그 이하의 위협에는 군사적 공세의 수위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했다.¹⁰⁾ 억지 이론은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응과 관련된다. 억지는 보복을 위협하거나(처벌·보복에 의한 억지), 상대의 작전 계획을 방해해(거부에 의한 억지) 적들에게 군사력을 사용해도 소용없음을 확신시키려는 시도로 정의된다.¹¹⁾ 이를 적용해 러시아 군사적 대응이 패권팽창적인지 위협

8) 월트는 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4대 요소로 ① 총체적 권력(aggregate power), ② 지리적 인접성(geographic proximity), ③ 공격적 군사 능력(offensive military capability), ④ 인지된 공격 의도(perceived aggressive intention)를 제시했다. Stephan Walt, "Multilateral 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s," in Richard Schultz, Roy Godson, and Ted Greenwood, ed., *Security Studies for the 1990s* (Washington, New York, and London: Brassey's, 1994), pp. 241-272.; 박재영, 『국제정치 패러다임』, 4판, (서울: 박영사, 2015), p. 242에서 재인용.

9) 2010년 군사 독트린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군사적 위협 = 특정 조건 아래 군사적 위협이 부상되게 만드는 요소들의 총합으로 특징될 수 있는 국가 간 혹은 국가 내부 관계의 상태. *군사적 위협 = 적대 국가 사이의 군사적 갈등이 발발할 실제적 가능성과 특정 국가(또는 그룹 혹은 군사력(무장 폭력)을 활용하려고 하는 분리주의(테러리스트) 조직의 높은 전투준비 태세에 따라 규정되는 국가 간 혹은 국내 관계의 상태. Президент, *О Военной доктри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5 февраля 2010 г. N 146 참조.

10) 본 연구에서는 국가이익을 존망의 이익(Survival interest), 핵심적 이익(Vital interest), 중요한 이익(Major interest), 지엽적 이익(Peripheral interest) 등 네 가지로 구분 하는 분류를 따른다. 이상만·김동찬, “핵심 국가이익의 충돌과 타협의 메커니즘 고찰: 미·중 관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 회보』, 제27권, 제2호 (2017), p. 191 참조.

11) Von Hlatky S., “Introduction: American Alliances and extended deterrence,” in S. Von Hlatky and A. Wenger, (ed.), *The future of extended deterrence: The United States, NATO, and beyond*.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15), p. 1.

방어 차원인지 판단한다.

본 연구의 전반적 분석 대상은 지역 패권 목표의 전개 과정과 이 목표가 현실적 힘의 배분과 연결되는 양상이다. 패권 목표의 전개 과정은 국가안보 지침과 대통령 교서를 통해, 현실적 힘의 배분의 변화는 탈냉전기 재래식·핵전력의 변화를 통해 분석한다. 재래식 군사력은 유럽나토와 러시아 군사력의 절대적 감축 추세, 군사적 균형의 변화를 위주로 살핀다.¹²⁾ 대상 군사력은 1990년 유럽안보 협력기구(OSCE)와 구소련이 체결했던 유럽재래식무기감축(CFE) 조약의 5대 대상 무기 가운데 러시아 군사 전략의 특징이자 공세적 패권국의 특징으로 꼽히는 지상군 공격 무기인 탱크·대포·전투차량(ACV)의 추세다.¹³⁾ 핵 전력은 전략·전술핵 무기를 미국과 비교한다. 힘의 배분이 강화되는 쪽이면 공세다.

두 번째, 힘의 사용은 힘의 배분을 활용하는 방식의 변화가 분석 대상이다. 공세의 목적이 억지면 방어, 억지의 정도를 넘으면 패권팽창적이다. 이를 군 편제 변화, 군사 훈련 추세, 전쟁 등을 통해 분석한다. 편제는 소련 군사 전략의 특징인 공격성이 러시아의 군사 전략에 반영된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군사 훈련은 물리적 변화 없이 힘의 배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대표적 수단이므로 중요하다.¹⁴⁾ 군사 훈련은 ‘공세성이 강한 훈련’을 대상으로 하며 그 기준은 러시아 국방부 홈페이지와 요한 노르베르그(Johan Norberg)의 분류를 종합해 정했다.¹⁵⁾ 전략적 수준, 작전-전략적 수준의 훈련이 분석 대상이다. 전쟁은 가장 강력한 공세이므로 분석 대상이다. 직접적 군사 공세가 전개되기 이전의 정치·외교적 공세는 연구에서 제외한다.

글의 전개는 러시아 패권 목표의 추구 양상, 이런 목표가 힘의 배분에 뒷받침 됐는지 여부, 조지아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의 성격 분석, 그리고 종합 결론 순으로 한다.

12) 유럽나토는 나토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토를 의미한다.

13) 존 미어샤이머 저, 이춘근 역,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파주: 나남출판, 2001), pp. 177-242.

14) Heuser Beatrice, “Reflections on the Purposes, Benefits and Pitfalls of Military Exercises: Political Messaging and Strategic Impact,” *NATO Defense College* (2018), pp. 9-10.

15) 러시아 국방부는 자국 훈련을 전략(strategical), 작전-전략(operational-strategical), 작전(operational), 전술(tactical) 등 4개로 구분한다. 노르베르그는 전략적 수준은 ‘군사력 사용을 국가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 작전-전략적 수준은 육·해·공 3군 가운데 최소 두 개 군이 동원되는 것으로 본다. 그는 연례 전술-전략 훈련과 전략적 훈련의 대상을 정례 전략수준 훈련(STRATEX)과 전투 대비태세 긴급 검열(snap inspection)로 구분했다. Johan Norberg, “Training For War Russia’s Strategic-level military exercises 2009-2017,” *FOI* (2018), p. 31.

III. 국가 목표로서의 군사 패권

러시아는 ‘다극적(многополярный, multipola) 국제질서 아래 자격 있는(достойный, worthy) 강대국 위상’이라는 최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위 군사 목표로 지역 군사패권을 추구했다.¹⁶⁾

엘친 대통령은 러시아 독립 이전인 1990년 11월 19일 “러시아는 새로운 제국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¹⁷⁾ 그러나 독립 뒤 실제 행보는 달랐다. 우선 1992년 5월 12일 CSTO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4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모든 회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된다’는 집단안보조항을 둔다. 힘의 배분 차이를 고려하면 완전히 러시아 우주의 패권적 질서다.¹⁸⁾ 이어 1993년 2월 엘친 대통령은 “러시아는 옛 소련 영토의 평화와 안정 수호자로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¹⁹⁾ 이어 4월 발표된 국가안보개념은 단극이 무너지고 국제정치의 다변수성과 지역중심 관계가 부활된 상황에서 러시아는 역할을 확보하겠다고 했다.²⁰⁾

1994년 2월 대통령 의회 교서는 ‘러시아는 현대 다극적 국제 질서의 안정에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며 지역 군사 패권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그해 9월 대통령령 940호는 CSTO와 CIS 전체를 국가연합과 집단안보기구로 묶는다는 목표도 제시했다.²¹⁾ 1995년 대통령령도 러시아 중심의 국가연합, 집단안보체제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력한 패권 질서를 CIS 국가에 요구했다. 1997년 6월 대통령 의회 교서도 국제사회는 1개 중심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다극 사회로 규정하며 지역 패권 의사를 드러냈다.

이후 푸틴 대통령 시기에는 서방에 불만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군사 패권 목표를 드러냈다. 2000년 1월 10일 국가안보개념에서 ‘다극을 방해하는 서방’이라는

16)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осква: Кремль, 2008)

17)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저, 김명섭 역, 『거대한 체스판 - 21세기 미국의 세계 전략과 유라시아』 (서울: 도서출판 삼인, 2004), p. 135.

18) “Договор о коллектив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 изменениями на 10 декабря 2010 года),” *Кодекс*, <http://docs.cntd.ru/document/1900489> (검색일: 2019. 3. 30).

19) 장병옥,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과 국제관계,” 『중동연구』, 제25권, 1호 (2006), p. 47.

20) “XXXII. Место и роль России в современной систем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https://www.gumer.info/bibliotek_Buks/History/nov_history_evropa_usa/29.php (검색일: 2019. 2. 27).

21)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4. 09. 1995 г. № 940.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кур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государствами - участниками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Москва: Кремль, 1995), <http://kremlin.ru/acts/bank/8307> (검색일: 2019. 5. 12).

개념이 처음 제시된 뒤 다극과 지역 군사패권 목표는 대통령 의회 교서에서 용어와 뉘앙스를 달리하며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2009년 5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은 ‘국제관계의 다극성이 형성되고 있다 …이 안보 전략의 목적은 러시아를 주요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2013년 12월 푸틴 대통령 의회 교서는 “누구도 러시아에 군사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²²⁾ 2014년 12월 대통령 의회 교서도 “러시아를 힘과 분리해 말하는 건 쓸모없는 일이다. 그 점은 1990년대, 2000년대 우리가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그랬다. 우리는 1941년과 1942년의 고통스러운 패배를 잊어서는 안된다. 나는 이런 맥락에서 국제안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했다.²³⁾ 러시아의 정체성을 패권국 소련과 직결시키며 군사 패권국 위상을 재강조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처럼 군사 패권 목표를 계속 추구하는 기간 CSTO(7) + 2 구조로 시작된 군사패권 체제는 CSTO(6) + 1 + 2 → CSTO(6) + 1 + 1 → CSTO(6+2) + 1 + 1 → CSTO(6 + 3) + 1로 변했다. 괄호안은 조약 체결국, 혹은 친러 지역으로 러시아 군사력이 주둔하는 나라의 수, 「」는 조약 밖에서 양자 합의로 러시아 군사력이 주둔하는 나라나 지역이다. 체제 구성 요소가 끊임없이 바뀌며 불안정했다는 의미다. 러시아는 ‘안정 작업’을 하면서 공세를 표출했다. 그렇다면 군사패권 목표에 신현실주의 이론이 중시하는 힘의 배분, 특히 군사력의 뒷받침은 댔는가.

IV. 공세 지표

1. 군사력의 변화

CFE 3대 재래식 무기 추세를 『The Military Balance』(이하 TMB)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전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표 1>) 탈냉전 첫해인 1992년 총 군사력의 규모를 1로 할 때 2016년까지 탱크, ACV, 대포 모두 줄어들었다. 탱크는 1 → 0.37, ACV는 1 → 0.27, 대포는 1 → 0.46이 됐다. CFE 조약적용

22)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Москва: Кремль, December 12, 2013).

23) President of Russia, *Presidential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Moscow: Kremlin, December 4, 2014).

기간이었던 1992-1999년 감축이 가장 컸고 2000-2016년 완만하게 줄었다. 같은 기간 유럽 나토의 전력은 탱크 1 → 0.47, ACV 1 → 0.61, 대포 1 → 0.46이다. 러시아의 감축 폭이 더 컸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지역 군사패권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상군 군사력이 줄곧 역내를 압도하고, 유럽은 구축을 방관했으며, 이후엔 유럽 나토의 비대칭 감축으로 러시아의 지상군 군사력 균형이 ‘비의도적인 우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우선 러시아와 CIS-1(CIS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상태)의 군사력 균형은 1994년-2016년 탱크 2.92 → 4.08, ACV 2.24 → 1.61, 대포 4.79 → 4.36이다. 러시아의 군사력이 나머지 CIS 국가 전체의 합을 넘는다. 러시아와 CSTO 나머지 국가의 상황은 더 불균형하다. 지상군의 힘을 결정하는 탱크·대포의 압도적 능력은 역내에 군사 패권 질서를 강요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나토 지상군 군사력의 경우 미국과 유럽 국가의 상대적으로 대등한 힘의 결합이다.

러시아의 대유럽 나토 균형은 탱크 2.81 → 2.25, ACV 1.33 → 0.58, 대포 2.93 → 2.35가 된다. 탱크의 대유럽 균형은 2006년까지 2.81 → 1.46으로 떨어졌다가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 대포는 2006년까지 2.93 → 1.43이 됐다가 이후 상승했다. 균형 하락 시기에 ‘역내 압도-유럽 방관’ 상황에서 패권 질서가 구축되고 상승 시기에는 ‘역내 압도-대 유럽 우위’ 상황이 패권 유지와 러시아의 조지아·우크라이나 공세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핵전력은 1992년 기준 러시아의 핵 운반수단의 절대 수량 변화로 살필 수 있다. (<표 1>) 1992년-2016년 TMB를 기준으로 러시아 핵 운반수단은 1 → 0.27, *Bulletine of the Atomic Science*(이하 BAS)·SIPRI 기준 1 → 0.37이 됐다. 핵탄두의 절대 수도 줄었다.²⁴⁾ 전략핵 감축 체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핵 운반수단의 대미 균형은 TMB 기준 1.32 → 0.71, BAS·SIPRI 기준 1.20 → 0.61이 됐다. 러시아의 2격 능력은 확보돼 있지만 절대적 균형은 미국이 앞선다.

전술핵 상황도 전술핵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플랫폼의 경우 1992년을 기준으로 한 2016년 상태가 유도미사일발사잠수함(SSGN)은 러시아 1 → 0.28, 미국 1 → 0.68이 됐고 러시아의 대미 균형은 1.02 → 0.42가 됐다. 수상함은 러시아 1 → 1.38, 미국 1 → 3.82로 양국 모두 늘었지만 러시아의 수상함 대미 균형은

24) Hans M. Kristensen, Robert S. Norris, “Global nuclear weapons inventories, 1945–2013,”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177/0096340213501363> (검색일: 2020. 2. 20).

0.59 → 0.21이 됐다.

탈냉전 기간 전략·전술핵 부분에서 러시아의 능력은 미국에 크게 뒤진다. 다만 전술핵 플랫폼의 2009년~2010년 이후엔 변화가 있다. SSGN은 1992년을 기준(1)으로 2008년 최저였다가(0.22) 2016년 0.28이 됐다. 수상함은 2012년 0.62로 최저였다가 2016년에는 1.38이 됐다.

러시아는 미사일방어망(MD)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초음속 활강 비행체 아방가르드, 사르마타 ICBM, 기동탄두 킨잘 순항미사일 등을 소개했고, 2019년엔 레이저 무기 페레스벳(Пересвет), 무인잠수함 포세이돈, 핵엔진 부레베스트니크(Буревестник)을 갖춘 무한 동력 순항미사일, 마하 9의 미사일 치르콘(Циркон) 등을 공개했다.²⁵⁾ 이는 단계별 탄력적 접근 전략(EPAA)의 3·4 단계가 마무리를 용인할 수 없다고 한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한다.²⁶⁾ 러시아의 MD 조치는 자국 전략핵에 대한 위협 인식에 따른 거부(denial) 방식의 억지로 볼 수 있다.

힘의 배분 면에서 러시아는 2010년대 후반 전술핵과 MD의 공세를 높였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재래식·핵전력 모두 감축했기 때문에 지역 군사패권이라는 공세적 목표를 힘의 배분이 뒷받침했다고 보기 어렵다.

25) President, *Presidential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Moscow, January 1, 2018);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Москва February 20, 2019).

26) 이대식, “유럽 미사일 방어망을 둘러싼 미·러 갈등 분석,” 『러시아연구』, 제25권, 제2호, (2015), pp. 185-186.

〈표 1〉 러시아와 CSTO 국가 및 유럽 국가의 재래식·핵전력의 변화 추세

러시아 핵무기 다량 보유국	영국		러시아	1	0.81	0.59	0.58	0.52	0.49	0.49	0.49	0.40	0.40	0.40	0.42	0.42	0.42	0.42	0.42	0.42	0.42	0.38	0.38	0.38	0.37	0.37	0.37	
	유럽 나토		유럽 나토	1	0.95	0.84	0.78	0.71	0.72	0.70	0.88	0.81	0.81	0.76	0.73	0.91	0.82	0.81	0.73	0.72	0.71	0.64	0.59	0.51	0.48	0.47	0.46	
	ACV		러시아	1	0.89	0.68	0.65	0.52	0.51	0.51	0.51	0.51	0.51	0.51	0.51	0.49	0.48	0.47	0.47	0.47	0.47	0.33	0.33	0.33	0.33	0.26	0.27	
	유럽 나토		유럽 나토	1	0.79	0.74	0.73	0.70	0.64	0.64	0.74	0.72	0.73	0.73	0.73	0.86	0.82	0.82	0.84	0.85	0.82	0.79	0.73	0.69	0.67	0.60	0.62	
	미국		러시아	1	0.81	0.76	0.73	0.69	0.65	0.62	0.60	0.49	0.49	0.49	0.50	0.48	0.48	0.48	0.48	0.48	0.48	0.48	0.47	0.47	0.47	0.46	0.46	
	유럽 나토		유럽 나토	1	0.91	0.86	0.86	0.80	0.78	0.76	0.91	0.83	0.84	0.81	0.79	0.99	1.00	0.99	0.96	0.86	0.81	0.76	0.70	0.67	0.61	0.58	0.57	
	영국		러시아	2.81	2.39	1.99	2.09	2.07	1.90	1.94	1.55	1.40	1.39	1.48	1.54	1.30	1.44	1.46	1.63	1.64	1.68	1.86	1.82	2.12	2.26	2.23	2.22	
	ACV		러시아/유럽 나토	1.33	1.51	1.23	1.18	0.99	1.05	1.06	0.91	0.94	0.92	0.93	0.93	0.76	0.79	0.76	0.74	0.73	0.76	0.79	0.59	0.63	0.65	0.73	0.55	
	미국		유럽 나토	2.93	2.61	2.59	2.48	2.53	2.46	2.42	1.92	1.75	1.72	1.79	1.84	1.43	1.42	1.43	1.48	1.64	1.74	1.86	1.98	2.05	2.25	2.33	2.31	
	러시아 핵무기 지배국	영국		러/CSTO-1	14.86	7.55	6.19	7.47	6.77	7.44	7.41	9.25	7.19	7.12	7.40	7.48	7.78	7.78	6.99	7.00	7.10	6.89	6.89	9.03	10.54	15.89	14.46	14.15
유럽 나토			유럽 나토	1.19	1.18	1.11	1.21	1.29	1.73	1.69	2.16	1.92	2.00	1.88	1.81	2.23	2.02	1.99	1.78	1.78	1.74	2.02	1.88	1.60	1.50	1.48	1.44	
러/CSTO-1			러/CSTO-1	16.71	9.81	9.54	8.61	9.98	9.01	9.05	11.32	9.53	9.52	9.53	10.03	9.75	8.89	9.75	7.70	6.80	6.80	6.79	7.52	8.63	12.32	12.17	12.30	
미국			유럽 나토	1.59	1.69	1.67	1.77	1.69	1.79	2.13	2.53	2.23	2.51	2.42	2.32	2.91	2.91	2.88	2.78	2.51	2.17	2.18	1.92	1.68	1.67	1.72	1.71	
ACV			러/CSTO-1	9.25	8.21	4.48	5.42	4.63	4.61	7.22	6.81	6.25	6.15	6.13	6.14	5.93	5.79	4.88	4.89	4.60	4.60	4.53	3.91	4.60	6.05	6.03	5.32	
유럽 나토			유럽 나토	1.25	0.91	0.84	0.95	0.91	1.02	1.02	1.19	1.29	1.30	1.76	1.88	2.30	1.48	1.41	1.46	1.26	0.94	1.20	1.10	1.39	0.94	0.80	0.83	
<자료 TMB>																												
러시아 핵무기 소유국		영국		러시아	1	0.90	0.87	0.75	0.68	0.68	0.64	0.62	0.58	0.54	0.49	0.49	0.44	0.42	0.38	0.37	0.38	0.32	0.30	0.30	0.25	0.26	0.27	0.27
		미국		미국	1	0.87	0.73	0.67	0.66	0.67	0.72	0.66	0.67	0.67	0.62	0.62	0.62	0.57	0.56	0.54	0.53	0.50	0.52	0.49	0.49	0.49	0.49	0.49
		유럽 나토		러/미	1.32	1.37	1.57	1.49	1.37	1.34	1.17	1.24	1.15	1.06	1.04	0.93	0.95	0.89	0.92	0.95	0.85	0.76	0.79	0.66	0.66	0.68	0.71	0.71
	<노리스 기밀>																											
	영국		러시아	1	1.11	1.10	0.98	0.86	0.86	0.81	0.79	0.79	0.80	0.69	0.67	0.62	0.58	0.55	0.50	0.46	0.42	0.38	0.36	0.38	0.36	0.37	0.37	
	미국		미국	1	1.23	1.07	0.92	0.91	1.02	0.91	0.91	0.91	0.94	0.94	0.90	0.87	0.83	0.83	0.83	0.78	0.74	0.74	0.74	0.74	0.74	0.74	0.74	0.73
	유럽 나토		러/미	1.20	1.07	1.23	1.28	1.14	1.01	1.06	1.04	1.04	1.01	0.87	0.89	0.86	0.83	0.80	0.73	0.71	0.68	0.62	0.58	0.59	0.61	0.59	0.60	
	SSGN		러시아	1	0.86	0.71	0.76	0.70	0.70	0.45	0.33	0.31	0.24	0.26	0.26	0.26	0.28	0.28	0.28	0.22	0.26	0.26	0.28	0.27	0.27	0.28	0.28	
	미국		미국	1	1.01	1.00	0.96	0.93	0.89	0.80	0.68	0.65	0.64	0.64	0.67	0.68	0.67	0.69	0.69	0.68	0.68	0.68	0.68	0.68	0.69	0.70	0.68	
	영국		러/미	1.02	0.87	0.73	0.80	0.77	0.80	0.58	0.49	0.49	0.39	0.41	0.39	0.39	0.43	0.41	0.41	0.33	0.39	0.39	0.42	0.40	0.40	0.41	0.42	
러시아 핵무기 소유국	영국		러시아	1	1.00	0.77	0.77	0.77	0.69	0.54	0.62	0.62	0.62	0.62	0.54	0.62	0.62	0.62	0.62	0.62	0.62	0.62	0.62	0.62	0.92	1.00	1.31	
	미국		미국	1	1.23	2.82	3.00	3.27	3.45	3.50	3.45	3.36	3.27	3.18	2.73	2.73	3.23	3.14	3.27	3.36	3.36	3.55	3.68	3.77	3.82	3.82	3.82	
	영국		러/미	0.59	0.48	0.16	0.15	0.14	0.12	0.09	0.11	0.11	0.11	0.11	0.13	0.12	0.11	0.12	0.13	0.11	0.11	0.10	0.10	0.10	0.14	0.15	0.20	
	미국		러/미	0.59	0.48	0.16	0.15	0.14	0.12	0.09	0.11	0.11	0.11	0.13	0.12	0.11	0.12	0.13	0.11	0.11	0.10	0.10	0.10	0.10	0.14	0.15	0.20	
	영국		러/미	0.59	0.48	0.16	0.15	0.14	0.12	0.09	0.11	0.11	0.11	0.13	0.12	0.11	0.12	0.13	0.11	0.11	0.10	0.10	0.10	0.10	0.14	0.15	0.20	
	미국		러/미	0.59	0.48	0.16	0.15	0.14	0.12	0.09	0.11	0.11	0.11	0.13	0.12	0.11	0.12	0.13	0.11	0.11	0.10	0.10	0.10	0.10	0.14	0.15	0.20	
	영국		러/미	0.59	0.48	0.16	0.15	0.14	0.12	0.09	0.11	0.11	0.11	0.13	0.12	0.11	0.12	0.13	0.11	0.11	0.10	0.10	0.10	0.10	0.14	0.15	0.20	
	미국		러/미	0.59	0.48	0.16	0.15	0.14	0.12	0.09	0.11	0.11	0.11	0.13	0.12	0.11	0.12	0.13	0.11	0.11	0.10	0.10	0.10	0.10	0.14	0.15	0.20	
	영국		러/미	0.59	0.48	0.16	0.15	0.14	0.12	0.09	0.11	0.11	0.11	0.13	0.12	0.11	0.12	0.13	0.11	0.11	0.10	0.10	0.10	0.10	0.14	0.15	0.20	
	미국		러/미	0.59	0.48	0.16	0.15	0.14	0.12	0.09	0.11	0.11	0.11	0.13	0.12	0.11	0.12	0.13	0.11	0.11	0.10	0.10	0.10	0.10	0.14	0.15	0.20	

2. 힘의 사용의 변화

힘의 배분이 위축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힘의 효율적 사용을 강화했다. 먼저 군사 훈련을 활성화해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켰다. 구소련 시절 실제 작전을 위한 준비로 활용됐던 군사훈련은 러시아에서도 같은 평가를 받게 됐다.²⁷⁾ 1998년 이후 ‘공세성이 강하다’고 서방이 평가하는 훈련은 아래 표와 같다. 2000년대 초반부터 규모와 빈도 면에서 강화 추세를 보인 군사 훈련은 1998년을 기준으로 2016년에는 20배 이상 규모가 늘었다.²⁸⁾ 이런 추세는 조지아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공세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 2〉 러시아의 군사 훈련과 규모 추세

연도	훈련 이름	참가병력(명)	연도	훈련 이름	참가병력(명)
1998	Air-bridge	12,000	2011	첸트르-2011	19,000
2003	보스톡-2003	70,000	2012	카프카즈+서부지구 CPX	15,000
2005	카프카즈-2005	5,000	2013	자빠드-2013	92,500
2006	카프카즈-2006	1,000		snap훈련	175,000
2007	보스톡-2007	미상	2014	보스톡 -2014	155,000
2008	보스톡-2008	8,000		snap훈련	375,000
	첸트르-2008	12,000	2015	첸트르-2015	103,800
	카프카즈-2008	8,000		snap 훈련	175,000
	안정-2008 (러, 벨라루스 합동)	미상	2016	카프카즈 2016	120,000
2009	오신	29,000		snap 훈련	120,000
2010	보스톡-2010	20,000			

출처 : 러시아 국방부, Johan Norberg, 언론 기사 종합

군 편제도 달라졌다. 구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대형 편제는 2008년 1,890단위였지만 이후 172개가 됐다.²⁹⁾ 구소련의 16개 군구(軍區)도 2010년 4개를 거쳐 2014년 5개 군구가 됐다. 2008년 아나톨리 세르듀코프(Anatoly Serdyukov) 국방

27) Heuser Beatrice *op. cit.*, p. 24; NATO, “«Запад-2017» и евроатлантическ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Вестник НАТО*, December. 14, 2017, <https://www.nato.int/docu/review/2017/also-in-2017/zapad-2017-and-euro-atlantic-security-military-exercise-strategic-russia/RU/index.htm> (검색일: 2019. 5. 10).

28) 군사훈련의 내용은 러시아 국방부 사이트, 러시아 언론, 서방 언론 등에 보도되는 등 분산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성규의 박사학위 논문 『러시아의 탈냉전기(1992년-2016년) 군사적 공세성 연구: 능력이 불완전한 지역 패권국의 딜레마』,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2020) 참조.

29) De Haas, M., “Russia’s military reforms: Victory after twenty years of failure?,” *Clingendael paper*, No. 5 (2011), p. 25.

장관이 시동 전 군 개혁의 결과다.³⁰⁾ 핵심은 사단 중심에서 여단 중심으로의 편제 변화다.³¹⁾ 고기동 여단은 냉전 시 소련이 나토 전선을 기습 돌파해 승리의 계기를 만드는 특별 기동 부대인 OMG(Operation Maneuver Group) 전술을 부활시킨 것으로 해석됐다.³²⁾ 하이브리드 전쟁 개념도 출현했다.³³⁾ 2013년 발레리 게라시모프 (Valery Gerasimov) 러시아 합참의장이 제시한 것으로 “전쟁은 더이상 선언되지 않으며, 개전된 뒤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러시아의 새로운 전쟁 독트린으로 여겨졌다.³⁴⁾ 2013년 2월 27일 이 글이 러시아 매체에 발표된 직후인 3월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져 서방에 충격을 주면서 커다란 의미가 부여됐다.

러시아의 군사적 효율성이 향상되면서 발트 3국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다. 한 연구는 러시아 서부 전선의 27개 기동 전술 대대가 공격을 시작하면 36-60시간 만에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수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³⁵⁾ 나토의 12개 기동 대대는 1주일 뒤 배치될 수 있는데 이때는 이미 늦는다는 것이다. 기동성 위주로 재편되고 거듭되는 훈련으로 러시아 군은 전략적 강점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³⁶⁾

국외 전진 배치 러시아 패권 군사력도 2010년대 후반 늘었다. (<표 3>) 2008년 24,000여 명이 2011년-2013년 3만 2,000여 명, 2015년 37,300여 명, 2016년 45,300여 명으로 확대됐다.³⁷⁾ 서부 전선에서 주로 늘었다. 2013년 이후 중앙아시아 전진 배치 군사력은 5,500명을 유지했지만 서부 전선에는 2011년-2014년 24,000여 명에서 2015년 31,000여 명, 2016년에는 39,800여 명으로 늘었다.³⁸⁾

30) Viljar Veebel & Illimar Ploom, “Are the Baltic States and NATO on the right path in deterring Russia in the Baltic?,” *Defense & Security Analysis*, Vol. 35, No. 4 (2019), p. 408.

31) Lester W. Grau, “Russian Deep Operational Maneuver : From the OMG to the Modern Maneur Brigad,” *Professional forum*, (2017), p. 25.

32) Lester Grau, *op. cit.*, p. 25.

33) Andrew Radin, “Hybrid Warfare in the Baltics: Threats and Potential Responses,” *RAND*, (2017), p. 1.

34) Valery Gerasimov, Chief of the General Staff of the Russian Federation Armed Forces, “ Value of Science Is in the Foresight. New Challenges Demand Rethinking the Forms and Methods of Carrying out Combat Operations,” *MILITARY REVIEW*, (2016), p. 24.

35) Andrew Radin, *op. cit.*, p. 28.

36) Viljar Veebel, Illimar Ploom, *op. cit.*, p. 408.

37) IISS, “Russia,” *TMB* (London: Brassey’s), 1992-2016 종합.

38) IISS, “Russia,” *TMB 2014* (London: Brassey’s, 2014), p. 192.; IISS, “Russia,” *TMB 2015* (London: Brassey’s, 2015) p. 198.; IISS, “Russia,” *TMB 2016* (London: Brassey’s, 2016), p. 202.

러시아 내부 개혁과 더불어 CSTO 장악력도 강화됐다. 1995년 2월 CIS 정상 회의는 집단안보위원회의 사무국을 창설했고 합동방공망도 만들었으며 5월엔 CIS 7개국 국경 보호 협정도 체결했다.³⁹⁾ 1999년엔 벨라루스와 군 합동지휘부 구성, 아르메니아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강화 등이 합의됐다.⁴⁰⁾ 1999년 4월 타지키스탄과는 군사협력에 관한 합동 의정서를 체결했고 9월엔 러시아-타지키스탄 합동 훈련을 했다.⁴¹⁾ 2001년 5월 CIS 예레반 정상회담에선 지역 갈등과 특히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전파되는 이슬람 극단주의와의 갈등에 대비,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는 3,500명-5,000명 규모의 ‘집단신속배치군(CRDF)’을 창설했다.⁴²⁾ 2003년 6월엔 카자흐스탄과의 합동 군사계획 협정 및 공동안보를 위한 군사력 사용협정 작업을 시작했으며 타지키스탄과는 201 MR 사단의 주둔을 연장했으며, 2004년 10월에는 새 군 기지 설립에도 합의했다. 키르기스스탄과는 CRDF 새 기지 설립 문제가 논의됐다.⁴³⁾

CSTO 능력 향상을 위한 러-CSTO 합동 군사 훈련도 활성화됐다. 2006년 10월 러시아-키르기스스탄이 대테러 합동 훈련, 2006년 CSTO의 합동 방패(Шит союз а, Union shield-2006) 훈련, 2007년 CSTO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Peace mission frontier-2007 합동 대테러 훈련 등이 있었다.⁴⁴⁾

2009년 2월 러시아 주도로 22,000명 규모의 집단신속배치대응군(CRRF)이 창설했고,⁴⁵⁾ 2011년에는 3,500명 규모의 집단평화유지군도 만들었다.⁴⁶⁾ 러시아가 주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CSTO는 강력한 러시아 중심의 패권 질서 속에서 안정돼 갔다.

이처럼 러시아는 자체 개혁을 통해 군 편제, 군사력 운용을 개혁했고 CSTO 체제의 장악력을 높였다. 이런 노선은 내적 강화로 구축 당시 불완전했던 지역 패권의 역량 강화라는 의미도 있다. 그런 흐름 가운데 조지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39) IISS, “Russia,” *TMB 1995-1996* (London: Brassey’s, 1996), p. 106.

40) IISS, “Russia,” *TMB 1999* (London: BRASSEY’S, 1999), p. 108.

41) Carmen Amelia Gayoso Descalzi, “Russian hegemony in the CIS region: an examination of Russian influence and of variation in consent and dissent by CIS states to regional hierarchy,” (Ph D. diss.,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11), p. 61.

42) IISS, “Russia,” *TMB 2003* (London: Brassey’s, 2003), p. 87.

43) IISS, “Russia,” *TMB 2005* (London: Brassey’s, 2005), pp. 153-154.

44) IISS, “Russia,” *TMB 2006* (London: Brassey’s, 2006), p. 188.

45) “Agreement on Collective rapid reaction forces of the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IS-Legislation*, <http://cis-legislation.com/document.fwx?rgn=29645> (검색일: 2019. 5. 16).

46) Margaret Klein, “Russia’s Military: on the Rise?,” *Transatlantic Academy paper series*, No. 2 (2016), p. 22.; “Putin to take part in CSTO Collective Security Council meeting in Minsk,” *TASS*, Nov. 13, 2017, <http://tass.com/politics/978172> (검색일: 2019. 5. 16).

V. 패권 팽창인가 방어적 억지인가: 두 군사 갈등 분석

러시아의 외부 대응이 패권 팽창적인지 불안정한 지역 패권 방어를 위한 억지인지 여부는 조지아 전쟁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살필 수 있다. 이 군사 갈등의 분석은 러시아와 나토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러시아-나토 관계는 1991년 북대서양협력위원회로 시작됐다. 탈냉전 초 러시아와 서방은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문제 해결에 큰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⁴⁷⁾ 그럼에도 러시아의 나토 경계심은 높아갔다. 1994년 1월 헝가리 동유럽 3국의 회원 가입을 위한 NATO PfP(Partner for Peace)가 가동되자 열린 대통령은 1994년 2월 의회 교서에서 러시아 없는 나토의 확대 반대를 천명했다.⁴⁸⁾ 1995년 2월 의회 교서에는 “나토의 성급한 확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1996년 2월 의회 교서는 ‘나토의 군사구조를 러시아 국경으로 전개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해 지정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1997년 3월 대통령 의회 교서도 나토의 동진을 러시아 안보 이익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⁴⁹⁾ 이에 나토는 1997년 3월 14일 실질 전투력을 회원국에 추가로 영구 주둔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했다.⁵⁰⁾

그러나 나토가 다시 1997년 8월 폴란드 등 3국의 가입 협상 개시를 결정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사를 환영하자 러시아는 긴장했다.⁵¹⁾ 열린 대통령은 1998년 2월 의회 교서에서 “나토 중심주의(натоцентризм)와 이의 구현을 러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러시아는 나토와 대결 노선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1998년 3월 러시아-나토 상설합동위원회(PJC) 구성은 그런 맥락이다. 탈냉전 전기 러시아의 나토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이었다.

2000년 이후 푸틴 대통령의 의회 교서도 나토에 대한 위협 인식이 드러나 있다. “국제적 영역에서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군사 정치적 블록과 동맹, 무엇보다 나토의 동진 확장이 있다.” (2000년) “나토의 문제는 의사결정을 할 때 자주

47) 고재남, “러시아의 대나토 정책과 유럽 안보 협력체의 장래,” 『국제논총』, 제33호 (1997), p. 140.

48)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1994 참조.

49)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06.03.1997 г. Порядок во власти — порядок в стране (О положении в стране и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Москва: Кремль, 1997).

50) NATO, “Statement by the North Atlantic Council,” March, 14, 1997, <https://www.nato.int/docu/pr/1997/p97-027e.htm>. (검색일: 2019. 4. 8).

51) “Madrid Declaration on Euro-Atlantic Security and Cooperation,” NATO, last modified August 8, 1997, <https://www.nato.int/docu/pr/1997/p97-081e.htm> (검색일: 2019. 4. 20).

국제사회의 의견과 국제법상 권리를 무시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2001년)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나토와 관계의 질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2년)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특별히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러다 2008년 7월 외교정책 개념은 나토를 패권 체제 불안정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발표했다. 이후 2008년 8월 조지아 전쟁이 일어났고 2009년 5월 국가 안보개념은 나토를 ‘러시아의 전략적 군사 능력을 위협하는 적’으로 반복 언급했다.

군사 독트린은 나토가 러시아에 어떤 위협인지 선명하게 드러낸다. 1993년 독트린은 군사 위협 요인으로 ‘타국이 러시아 연방과 그 동맹국에 영토를 요구하는 것’, 군사적 위협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인으로 ‘러시아와 동맹의 영토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군부대와 무장 집단의 타국 영토에서의 훈련’을 적시했다.⁵²⁾ 나토는 위협 요인으로 시사됐지만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4월 군사 독트린은 주요 외부 위협으로 ‘러시아의 군사 안보를 해치는 군 블록과 동맹의 확대’를 적시했다.⁵³⁾ 이바노프 독트린이라 불리는 2003년 러시아 국방부 보고서는 나토가 현재 공격적 독트린을 유지하면 핵전략 등 러시아의 군사계획과 군사력 발전 원칙을 크게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⁵⁴⁾ 2010년 군사 독트린은 주된 외부 위협으로 나토가 러시아 연방 가까운 지역에 군사 인프라를 이동하는 것과 블록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했다.⁵⁵⁾ 2014년 군사 독트린은 대외군사위협으로 NATO의 무력강화 및 국제법을 침해한 지구적 기능 수행, 러시아 국경으로 인프라 및 블록 확대, 러시아와 동맹국 인근 국가에 외국 군대를 전개하는 것 등을 꼽았다.⁵⁶⁾ 이외에 2015년 국가안보전략은 NATO의 군사적 잠재력 증강, 국제법을 위반하며 추구되는 나토의 글로벌 역할,

52) “The Basic Provisions of the Military Doctrine of the Russian Federation,” 1993,

<https://fas.org/nuke/guide/russia/doctrine/russia-mil-doc.html> (검색일 : 2020. 2. 16).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야지는 당초 아래 주소로 러시아어 원문을 공개했고 2018년에는 검색 가능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https://yeltsin.ru/uploads/upload/newspaper/1993/izv11_18_93/FLASH/index.html (검색일 : 2018. 9. 15).

53) Президент,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Военной доктри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1 апреля 2000 г. N 706.

54) Defense Ministry of Russian Federation, *The Priority Tasks of the Development of the Armed Fo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2003), p. 40.

55) Президент, О Военной доктрин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5 февраля 2010 г. N 146 Федеральный выпуск № 5106 (27), (2010).

56) Президент,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й выпуск № 6570 (298), (2014).

이 블록에 속한 나라의 충격적 군사적 행동, 나토의 추가 팽창, 나토의 군사 인프라를 러시아 국경에 접근시키는 것 등을 위협으로 꼽았다.⁵⁷⁾

탈냉전기 러시아의 나토 위협 인식 강도는 점증했다. 따라서 나토와 연계된 역내 움직임도 동일한 위협 선상에 놓였다. 조지아-우크라이나 사태는 이런 맥락에서 발생했다. 그렇다면 나토와 두 나라는 어떻게 연계됐고 그로 인해 직접 침해되는 이익은 무엇인가.

먼저 조지아 전쟁의 직접 원인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으므로 이 전쟁이 러시아의 패권적 확장인가 취약한 패권 위협에 대한 억지인지를 위주로 본다.⁵⁸⁾

러시아는 2008년 이전 북카프카즈 지역의 안정화에 힘을 기울였다. 지역 담당 북카프카즈 군구의 병력은 2002년 이래 10만 2,000명 수준으로 유지돼 모스크바 군구의 8만 병력을 크게 웃돌았다.⁵⁹⁾ 이후 군사 훈련 등 역량 강화조치가 취해졌다.⁶⁰⁾ 2008년 6월 병력은 9만 명으로 줄었다.⁶¹⁾ 계속 서방과 갈등을 벌였던 조지아의 러시아군 약 3,000명도 2007년 11월 철군 완료됐다.⁶²⁾ 북카프카즈의 병력 감축과 조지아 철군으로 러시아의 패권 군사력은 후퇴하는 양상이 됐지만 이를 보완하는 군사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지아의 분위기는 달랐다. 조지아는 2005년 국가안보개념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미국, 우크라이나, 터키를 꼽았지만 러시아는 파트너 국가로 남겼다.⁶³⁾

57) Президент, *О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1.12.2015 г. № 683, (2015).

58) 전쟁의 직접 계기는 IIFMCG, *Reoprt,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the Conflict in Georgia* (2009) 참조.

59) *TMB 2000-2007* 참조

60) 훈련과 관련된 언론 기사는 다음 참조.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прошли крупные маневры,” *iz.ru*, Mar. 31, 2005, <http://region15.ru/na-severnom-kavkaze-proshli-kрупnye-manevry/> (검색일: 2019. 5. 6.); Владимир Мухин, Виктор Мясников, “Обозреватель «Независимого военного обозрения» Кавказ в огненном кольце учени,”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July 14, 2006, http://nvo.ng.ru/forces/2006-07-14/1_kavkaz.html (검색일: 2019. 5. 6.); “Учения ‘Кавказский рубеж-2007’ вступили в завершающую фазу,” *REGNUM*, July 11, 2007, <https://regnum.ru/news/855498.html> (검색일: 2019. 4. 23.); “Круп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Кавказ-2008» проходят на юге России,” *ПЕРВЫЙ КАНАЛ*, July 20, 2008, <https://www.1tv.ru/news/2008-07-20/186261-kрупnye-voennye-ucheniya-kavkaz-2008-prohodyat-na-yuge-rossii> (검색일: 2019. 4. 23).

61) IISS, “Russia,” *TMB 2002* (London: Brassey’s. 2002), p. 225.; IISS, “Russia,” *TMB 2008* (London: Brassey’s, 2008), p. 219.

62) Margarita Antidze, “Russia closes last military base in Georgia,” *Reuters*, November 14, 2007, <https://www.reuters.com/article/us-georgia-russia-bases/russia-closes-last-military-base-in-georgia-idUSL1387605220071113> (검색일: 2019. 4. 11).

63) А. Пахомычев, Б. Ташлыков, “Воруженные силы Грузии: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Ии Тенденции их Развития,” *зарубежное военное обозрение*, No. 5 (710) (2006), p. 10.

친서방 분위기가 뚜렷했다. 2006년 11월 조지 부시 대통령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독려하는 연설을 했다.⁶⁴⁾ 조지아는 친러 분리주의 지역인 남오세티야 수도 츠한빌에 가까운 고리(Gori) 시에 2006년 7월 군 기지 건설을 시작했고 압하스 점령에도 2007년 세나키(Senaki) 군 기지를 완공했다.⁶⁵⁾ 모두 나토 가입을 염두에 두고 나토 기준에 따라 건설되는 기지들이었다. 국방비도 연평균 60% 이상 늘렸고 2008년 전후로는 GDP 20% 이상을 국방에 투입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⁶⁶⁾ 미국과 동유럽 국가들도 탱크 175대, BMP 126대, 대포 67문, 박격포 99문, 소방 시스템 6세트를 조지아에 지원했다.⁶⁷⁾ 러시아의 카프카즈-2008 훈련 시기에 나토 합동 ‘신속대응-2008’ 훈련을 했다.⁶⁸⁾

전쟁 발발 한 달 전인 2008년 7월 발표된 러시아의 대외정책개념은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포함하는 나토 확대와 나토의 군사적 구조를 러시아 국경에 접근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⁶⁹⁾ 군사 갈등이 시사됐다. 전쟁은 이런 가운데 발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쟁 발발지인 남오세티야다. 남오세티야는 친러 분리주의 지역이면서 러시아 패권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는 전략적 후보지였다. 이런 지역을 나토의 지지를 배경으로 조지아가 위협했다.⁷⁰⁾ 이후 발발한 전쟁에서 러시아는 조지아 내부의 군사 시설과 군사 거점을 파괴한 뒤 철군했다. 조지아가 친 나토 국가가 돼 나토의 우산 아래 미 군사력이 주둔, 러시아에 치명적 군사 위협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는 후보 지역들이다.⁷¹⁾ 이는 러시아의 목표가 영토를 점령하는 패권 팽창보다 자국 패권 군사력에 대한 위협 제거에 있었음을 보여 준다. 러시아가 영토 점령 같은 팽창적 목표를 가졌다면 준비에 시간이 더 걸렸고

64)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eorge W. Bush, University of Latvia, Riga, Latv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Latvia*, last modified November 28, 2006, <https://www.mfa.gov.lv/en/news/latest-news/speeches-and-interviews/7829-address-by-the-president-of-the-united-states-george-w-bush-university-of-latvia-riga-latvia-28-november-2006> (검색일: 2019. 5. 16).

65) “Новости СНГ,” *ВПК*, July 12, 2006, <https://vpk-news.ru/articles/4505> (검색일: 2019. 5. 21).

66) Rogozin Dmitri, “НАТО и Россия. Наш ответ на угрозы Запада,” *ЛитМир - Электро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https://www.litmir.me/br/?b=277746&p=8> (검색일: 2019. 4. 17).

67) *Ibid.*

68) “Россия начала масштаб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на Кавказе,” *iz.ru*, July 15, 2008, <https://iz.ru/news/430083> (검색일: 2019. 5. 6).

69) Президент,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8. 7.

70) 전쟁 경과는 Georgia-Russia Conflict Timeline (includes South Ossetia and Abkhazia) 기사 및 전개 안성규 박사학위 논문 참조.

71) Alberto Priego, “Russia’s A2/AD Policy as a Balancing Strategy vs NATO Enlargement,” in J Martin Ramirez, Jerzy Biziewski, ed., *Security and Defence in Europe* (Gewerbestrasse: Springer, 2020), p. 211, p. 213.

동원 군사력도 더 많았을 것이다. 조지아 전쟁은 러시아의 기획 공격이라기보다 나토를 배경으로 한 조지아 발(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도 조지아 전쟁의 맥락과 유사하다. 소련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중요한 나라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해 양국 관계는 악화된다. 2008년 조지아 전쟁 이후 2010년 2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당선된 뒤 나토 가입 문제는 가라앉았지만 양측 연계는 계속 발전했다.⁷²⁾ 그러나 내용은 급진적이지 않았고 러시아와 특별한 갈등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2013년 11월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유럽 연합과의 경제 협력 추진을 백지화하고 친러로 기울면서 정권 붕괴 위기가 닥치고 상황이 일변했다.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되면 군사독트린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된다. 크게 다음과 같은 위협이 있다.

첫째, CSTO 체제의 주축인 러시아 패권 군사력이 직접 위협받는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와 서방의 주 전선인 서부·남부 군구는 ‘적대 세력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다.

두 번째는 힘의 배분 면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게는 조지아와 크게 다르다. 2011년 JACIG(Joint Arms Control Implementation Group, 영국 합참 소속 CFE 업무 담당 조직)의 자료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탱크 전력은 유럽나토의 22%가 된다.⁷³⁾ 다른 지상군 무기의 비중도 높다. 이런 전력이 나토에 합류하면 서부 러시아의 대 유럽 나토 균형은 크게 악화된다.

세 번째, 크림반도의 흑해함대 문제다. 함대가 주둔한 흑해의 전략적 요충지 크림반도를 뺏기면 상황은 불리해진다.⁷⁴⁾ 역으로 나토에겐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발판이 마련된다. 흑해의 나토 함정의 미사일은 러시아 내륙 깊이 1,000km-1,200km 까지 공격할 수 있다.⁷⁵⁾ 나토 전투기의 러시아 공격도 쉬워지며 러시아의 유럽 지역 거의 전부가 나토의 공격 범위에 들어가고 모스크바가 위협받게 된다.⁷⁶⁾ 미국이

72) “Relations with Ukraine,” NATO, last modified November 4, 2019, https://www.nato.int/cps/en/natolive/topics_37750.htm (검색일: 2019. 4. 26).; 제성훈, “메드베데프 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 노선: 정책 기조 변화의 원인, 수행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1호 (2011), p. 32.

73) JACIG, “Vehicle & Aircraft Holdings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Treaty,” 2017,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onventional-armed-forces-in-europe-equipment-holdings-statistics-2017> (검색일: 2018. 4. 15).

74) Михаил Рыжкин, “Зачем России нужен Крым?” (출판 기관 미상, 2014), <https://commons.com.ua/uk/zachem-rossii-nuzhen-krym/> (검색일: 2019. 4. 23).

75) В.П. Петров, “Военно-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Крыма,” *СВ-АСТУР*, <https://svastour.ru/articles/puteshestviya/rossiya/krym/strategicheskoe-znachenie-kryma-dlya-rossii.html> (검색일: 2019. 4. 23).

추진하는 유럽 MD가 흑해에 배치될 경우의 문제도 지적된다.⁷⁶⁾

조지아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런 분석은 ‘존망-핵심(Survival-Vital) 수준의 국익’과 관련된 외부 위협에 러시아가 처벌 및 보복으로 억지했다는 평가를 가능케 한다. 두 나라가 완전한 나토의 영역에 속하면 우선 패권 군사 체제의 불안정을 자극하고 그 원심력은 CSTO 군사패권을 흔들 것이며 궁극적으로 패권 자체를 허물 수도 있다. 존망 수준 위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수용 가능 범위를 넘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공포를 안기고 힘의 추가 사용을 위협해 이를 예방·단념시키려 억지를 활용했다는 의미다.⁷⁸⁾ 처벌적 공격이 공세적이지만 방어에 맥락을 넘은 것은 아니다. 패권 팽창이 목표였다면 양국 영토를 실제로 장악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대규모 군사력이 동원됐을 것이다. 두 나라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공세는 외부 위협에 대한 취약한 패권의 방어라고 볼 수 있다.

VI. 러시아의 향후 공세성 전망

러시아는 탈냉전 전 기간에 걸쳐 군사패권 체제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외부 위협으로 인식되는 사안에는 최대 ‘처벌적 억지’라는 강경한 군사 공세를 전개했다. 불완전 패권국 러시아가 체제 불안의 확대를 막기 위해 유럽 나토 군사력의 약화 등을 계산하면서 자국 능력의 한계 내에서 군사 공세를 전개했다고 평가된다. 그렇다고 ‘패권 방어’ 태도가 러시아의 군사 공세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구조론 패권 질서에 대한 반성 없이, 잔해를 긁어모아 취약한 군사패권체제를 구축하고, 방어를 이유로 주권국을 침공하는 행위는 현대 국제질서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며, 서방이 경악하는 행위로 국제사회의 불안을 자극하는 행위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 문제로 해결이 어렵다. 당장의 문제는 ‘러시아가 능력의

76) 크림 주둔 흑해 함대가 러시아의 5개 함대 가운데 두 번째로 작은 함대여서 큰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Крым Имеет Небольшо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ВМФ России-The Washington Post,” *Центр*, March 17, 2014, <http://eurasian-defence.ru/?q=node/30010> (검색일: 2019. 4. 23).

77) Валерий Панов, “О роли Крыма в реализации гео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ланов США и НАТО,” *ОКО Планеты*, March 7, 2012, <https://oko-planet.ru/politik/politikmir/105811-o-rol-i-kryma-v-realizacii-geostrategicheskikh-planov-ssha-i-nato.html> (검색일: 2019. 4. 23).

78) Viljar Veebel, “NATO options and dilemmas for deterring Russia in the Baltic States,” *Defence Studies*, Vol. 18, No 2 (2018), p. 231.

한계 속에서도 어느 수준까지 공세를 펼 것이며 이는 지속될 것인가'에 있다. 서방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러시아가 패권 수준의 공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의 논거는 다양하다. 국방비가 대표적이다. (<표 3>) 러시아는 2016년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2017년 GDP의 4%를 국방비에 투자했다. 1992년을 '1'로 하면 2016년 달러 가치 기준 국방비는 계속 감소하다 2009년에 92년 수준을 회복했고(1.03) 2016년엔 1.7로 크게 넘었다. 이런 추세는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힘의 극대화이며 구소련으로의 회귀 양상을 보여준다. 러시아의 국방비는 1,500억 달러-1,800억 달러 수준이지만 정부 다른 부문 지출 및 구매력(PPP)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614억 달러 더 많다는 분석도 있다.⁷⁹⁾ 러시아 국방부가 밝힌 군 장비 현대화 추세도 근거로 거론된다. 국방부는 군 장비 30% 현대화 목표가 2015년 말 47%, 2017년 말 59.5%에 달했으며 2020년까지 70%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⁸⁰⁾

2013년 서부 군구의 4개 군, 2개 군단 사령부, 2개 사단, 15개의 기계화소총 및 탱크 여단이 2017년 중반 6개 군과 2개 군단 사령부, 4개 사단, 17개-18개 기동 여단으로 늘었다는 평가는 공세 강화의 증거로 간주된다.⁸¹⁾ 러시아가 서부 전선의 대규모 무력으로 재래식 공격을 한 뒤 핵 공격을 시사해 종전을 유도하는 'escalate-deescalate' 전략을 펼 것이란 주장도 거론된다.⁸²⁾

푸틴 대통령을 합리성이 결여된 지도자로 보며 정치적 위기에 처하면 대외 위기를 조성해 나토에 균열을 일으키고 그 틈으로 공세를 취하면 서방엔 존재론적 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있다.⁸³⁾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 추세의 지속가능성을 의심한다. 러시아의 성장율이 1.5% 이하로 떨어지고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지탱이 어렵다는 것이다.⁸⁴⁾ 총체적 국력 면에서도 러시아는 여전히 약하다. 한 나라의 전쟁 관련 국력을 종합한 CINC 지수가 2012년 러시아 0.04, 미국 0.139로

79) M. Kofman, "Russian defense spending is much larger, and more sustainable than it seems," *Defensenews*, 3, May, <https://www.defensenews.com/opinion/commentary/2019/05/03/russian-defense-spending-is-much-larger-and-more-sustainable-than-it-seems/> (검색일: 2020. 02. 24).

80) Charles Dick, *op. cit.*, p. 10.

81) *Ibid.*, p. 4.

82) *Ibid.*, p. 13.

83) 본 연구자가 참석한 2020년 초 유럽 지역 강연에서 나토 고위 인사가 발언한 내용. 채팅 하우스 룰이 적용됐기 때문에 내용과 발표자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84) Charles Dick, *op. cit.*, p. 2.

미국의 28%였다. 러시아는 나토 전체의 8% 수준이다. (<표 3>) 경제 제재 상태의 러시아 CINC가 앞으로 크게 향상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러시아가 쇠퇴하는 국가이며,⁸⁵⁾ 경제 규모는 한국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⁸⁶⁾ 군사적으로 지상군의 준비 태세는 이론적 구성보다 19%나 낮다고 평가되며,⁸⁷⁾ 러시아의 서부전선 A2/AD(반접근지역거부) 능력도 방어적이라는 연구도 있다.⁸⁸⁾

요컨대 강점에 집중하면 러시아가 패권팽창적 국가로 보이지만 취약성에 비증을 두면 러시아가 패권 팽창할 능력을 갖춘 나라가 아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불완전한 지역 군사 패권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외 군사 공세가 핵심 이익 이상의 국익에 군사적 위협이 제기됐을 때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음을 분석한 본 연구가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위협이 서방으로부터 제기된다고 인식하면 공세 수위는 높아질 것이다. 군사력만 강하고 총체적 힘의 배분은 여전히 약함에도 완전한 군사패권을 추구하며, 나토 확장을 자유주의 원칙으로 위장된 영토 장악으로 보는 러시아는 위협의 관점에서 대응하면서 공세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⁸⁹⁾ 저강도-하이브리드 공세로 서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토의 응집력을 흔들고, 미국 중심의 국제안보 체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다. 서방이 그간의 느슨한 태도를 극복하고 처벌을 통한 억지 수준을 각오할 만큼 강력히 대응할 태세가 돼 있지 않다면 그 틈을 노린 공세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VII. 결론

본 연구는 러시아의 군사적 행태와 관련해 기존의 연구와 관점을 다소 달리한다.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보는 통념보다 ‘약한 패권’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의 틀로 분석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책적 그리고 이론적으로 두 가지 생각할 점을 남긴다.

먼저 안보 정책적 측면이다. 러시아가 약한 패권임에도 탈냉전기 20여 년에

85) Jolyon Howorth, “Strategic autonomy and EU-NATO cooperation: threat or opportunity for transatlantic defence relations?”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Vol. 40, No. 5 (2018), p. 533.

86) M. Kofman, *op. cit.*

87) Igor Sutyagin, Justin Bronk, “Russia’s new ground forces: Capabilitie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security,” (London: Routledge, 2017) pp. 135-137.; Charles Dick, *op. cit.*, p. 14에서 재인용.

88) Luis Simon, “EU Strategy and European Defence: What level of Ambition,” *Clingendael*, (2016), p. 4.

89) Charles Dick, *op. cit.*, p. 1.

결쳐 구소련 지역에서 군사 패권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면 이에는 러시아만이 아닌 서방의 원인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약한 패권에 대한 억지 혹은 관리의 실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서방의 억지력 약화가 러시아의 패권 유지의 원인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렇다면 서방의 억지력이 강화되면 약한 패권 러시아의 군사 행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처럼 ‘모호한 억지력’이 계속되면 러시아의 공세는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서방의 억지력이 훨씬 강력해지면 러시아의 전략 계산이 영향 받고, 유럽 안보 질서가 달라지며, 그 영향은 러시아를 매개로 미·중 패권 경쟁에도 미칠 수 있다. 향후 러시아 군사 행태 연구를 위해 서방, 특히 유럽 억지력의 변화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다음으로 이론적 측면이다. ‘약한 패권’ 러시아는 현대 국제 정치이론에서 돌출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패권을 ‘정상적’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는 러시아는 구소련을 승계한 면에 비중을 두면 쇠퇴 패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체제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쇠퇴한 구소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신흥국가 러시아가 산업화에 성공해 부상하는 신흥패권은 더더욱 아니다. 신흥패권과 구패권의 충돌을 다루는 기존 패권 이론의 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러시아에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은 결국 러시아의 군사 행태는 본 연구 수준을 넘어 정책적·이론적으로 향후 더 본격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기관자료

- Arms Control Association. 2010. The European Phased Adaptive Approach at a Glance. April 15. <https://www.armscontrol.org/factsheets/Phasedadaptiveapproach> (검색일: 2019. 5. 17).
- Defense Mini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2003. *The Priority Tasks of The Development Of The Armed Fo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Moscow.
- IIFMCG. 2009. *Report,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Finding Mission on the Conflict in Georgia*. Sep. Brussels.
- JACIG(Joint Arms Control Implementation Group). 2017.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equipment holdings statistics: 2007-2017*. GOV. UK., London.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Latvia. 2006.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George W. Bush, University of Latvia, Riga, Latvia.” last modified November 28, 2006. <https://www.mfa.gov.lv/en/news/latest-news/speeches-and-interviews/7829-address-by-the-president-of-the-united-states-george-w-bush-university-of-latvia-riga-latvia-28-november-2006> (검색일: 2019. 5. 16).
- NATO. 1997. “Statement by the North Atlantic Council.” March 14. <https://www.nato.int/docu/pr/1997/p97-027e.htm>. (검색일: 2019. 4. 8).
- _____. 1997. “Madrid Declaration on Euro-Atlantic Security and Cooperation,” last modified August 8, <https://www.nato.int/docu/pr/1997/p97-081e.htm> (검색일: 2019. 4. 20).
- _____. 2018-2019. *NATO: Ready for the Future - Adapting the alliance*.
- _____. 2019. “Relations with Ukraine.” last modified November 4. https://www.nato.int/cps/en/natolive/topics_37750.htm (검색일: 2019. 4. 26).

연감 자료(Yearbook)

CFE TLE holdings(1992년-1999년 유럽 재래식무기감축(CFE)조약에 따른 조약 제한 무기의 국별 한도).

SIPRI Yearbook 1993, 1995, 1996, 1997, 1999, 20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IIS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2-2016* (London: Brassey's). 지역 및 국가별 군사력 추세 분석 및 현황 통계. 1992년-1996년까지는 출판물, 1997년 이후는 Taylor & Francis Online에 실린 게시물 기준.

Hans M. Kristensen, Robert S. Norris, "Global nuclear weapons inventories, 1945-2013."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177/0096340213501363> 63 (검색일: 2020. 2. 20).

러시아어 자료

Кремль. 1993. 2000. 2010. 2014.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 군사док트린). Москва.

Кремль. 1993. 2008. 2016.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 대외정책개념). Москва.

Кремль. 1997. 2000. Концепц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 국가안보개념). Москва.

Кремль. 1995. 2009. 2015.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 국가안보전략). Москва.

Кремль. 1994-2019.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러시아 연방 대통령 의회교서). Москва.

한글 단행본

로버트 길핀 저. 임상순 역. 2015. 『국제정치에서 전쟁과 평화』. 서울: 도서출판 선인.
박재영. 2015. 『국제정치 패러다임』. 4판. 서울: 박영사.

브레즌스키 즈비그뉴 저. 김명섭 역. 2004. 『거대한 체스판-21세기 미국의 세계 전략과 유라시아』. 서울: 도서출판 삼인.

존 미어샤이머 저. 이춘근 역. 2001.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파주: 나남출판.

케네스 월츠 저. 박건영 역. 2013. 『국제정치이론』. 서울: 사회평론.

영문 단행본

Sutyagin, Igor, Justin Bronk. 2017. “Russia’s new ground forces: Capabilitie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security.” RUSI Whitehall Paper No. 89. Chapter III. in Charles Dick, Dick, Charles. 2019. “Russian Ground Forces Posture Towards the West.” *Russia and Eurasia Programme of Chatam House*.

Walt, Stephen. 1990. “Multilateral 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s.” in Richard Shultz, Roy Godson, and Ted Greenwood, eds. *Security Studies for the 1990s* (Washington, New York, and London: Brassey’s).

학술논문

고재남. 1997. “러시아의 대 나토 정책과 유럽 안보 협력체의 장래.” 『국제논총』. 제33호.

안성규. 2020. 『러시아의 탈냉전기 (1992년-2016년) 군사적 공세성 연구: 능력이 불완전한 지역 패권국의 딜레마』.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대식. 2015. “유럽 미사일 방어망을 둘러싼 미·러 갈등 분석.” 『러시아연구』. 제25권. 제2호.

이상만·김동찬. 2017. “핵심 국가이익의 충돌과 타협의 메카니즘 고찰: 미·중 관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 회보』. 제27권. 제2호.

장병옥. 1996.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과 국제관계.” 『중동연구』. 제25권. 1호.

제성훈. 2011. “메드베데프 정부의 새로운 대외정책 노선: 정책 기조 변화의 원인, 수행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1호.

- America, Carmen Gayoso Descalzi. 2011. "Russian hegemony in the CIS region: an examination of Russian influence and of variation in consent and dissent by CIS states to regional hierarchy." Ph D. diss.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Béraud-Sudreau, Lucie. Bastian Giegerich. 2018. "NATO Defence Spending and European Threat Perceptions." *Survival*. Vol. 60. No 4.
- Blank, Stephen. 2008. "Threats to and from Russia: An Assessment."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 Czulda, Robert. 2019. "Enhanced Forward Presence: Evolution, Meaning and the End Game." in Róbert Ondrejcsák, Tyler H. Lippert (ed.). *NATO at 70: Out line of the Alliance Today and Tomorrow*. STRATPOL.
- Gerasimov, Valery. Chief of the General Staff of the Russian Federation Armed Forces. 2016. "Value of Science Is in the Foresight. New Challenges Demand Rethinking the Forms and Methods of Carrying out Combat Operations." *Military Review*.
- Gordon, Michael R. 2006. "U.S. Is Proposing European Shield For Iran Missiles." *New York Times*. May 22. <https://www.nytimes.com/2006/05/22/world/middleeast/22missiles.html> (검색일: 2019. 4. 17).
- Grau, Lester W.. 2017. "Russian Deep Operational Maneuver: From the OMG to the Modern Maneur Brigad." *Infantry*.
- Hans M. Kristensen, Robert S. Norris. 2015. "Global nuclear weapons inventories, 1945-2013." *Bulletine of the Atomic Scientists*.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177/0096340213501363> (검색일: 2020. 2. 20).
- Haas, De. M.. 2011. "Russia's military reforms: Victory after twenty years of failure?." *Clingendael paper*. No. 5.
- Heuser, Beatrice. 2018. "Reflections on the Purposes. Benefits and Pitfalls of Military Exercises: Political Messaging and Strategic Impact." NATO Defense College. pp. 113-117. in Beatrice Heuser, Tormod Heier and Guillaume Lasconjarias (ed.). *Military Exercise: Political Messaging and Strategic Impact*. Rome: DeBooks.

- Hlatky, S. Von. 2015. "Introduction: American Alliances and extended deterrence." pp. 1-16 in S. Von Hlatky and A. Wenger, (ed.). *The future of extended deterrence: The United States, NATO, and beyond*.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John Mearsheimer J.. 2014. "Why the Ukraine Crisis Is the West's Fault: The Liberal Delusions That Provoked Putin." *Foreign Affairs*. Vol. 93. Iss. 5.
- Klein, Margaret. 2016. "Russia's Military: on the Rise?." *Transatlantic Academy paper series*. No. 2.
- Kristensen, Hans, M., Robert S. Norris. "Global nuclear weapons inventories, 1945-2013."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177/0096340213501363> (검색일: 2020. 2. 20).
- Kofman, M.. 2019. "Russian defense spending is much larger, and more sustainable than it seems." *Defensenews*. 3 May. <https://www.defensenews.com/opinion/commentary/2019/05/03/russian-defense-spending-is-much-larger-and-more-sustainable-than-it-seems/> (검색일: 2020. 2. 24).
- Martyniuk, Vitalii. 2019. "What Does NATO Mean For Eastern Europe Today?" in Róbert Ondrejcsák, Tyler. H. Lippert. (ed.). *NATO at 70: Out line of the Alliance Today and Tomorrow*. STRATPOL.
- Mattelaer, Alexander. 2019. "Rediscovering geography in NATO defence planning." *Defence Studies*. Vol. 18. No. 3.
- Michhnik, Wojciech. (연도 미상). "Poland and Transatlantic Security after the Russian-Ukrainian Conflict: A Paradigm Shift?." *Jesuit University Ignatianum*. Krakow.
- Norberg, Johan. 2018. "Training For War Russia's Strategic-level military exercises 2009-2017." *FOI*.
- Norris, Robert S., Hans M. Kristensen.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00."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11."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02."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03."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04."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05.”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06.”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07.”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08.”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09.”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10.”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11.”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12.”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13.”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14.”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15.”
- _____. “Russian Nuclear Forces 2016.”

이상 게재지 *Bulletine of the American Scientist*.

- Radin, Andrew. 2017. “Hybrid Warfare in the Baltics: Threats and Potential Responses.” *RAND*.
- Schweller, Randall L. 1994. “Bandwagoning for Profit: Bringing the Revisionist State Back In.”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 Simón, Luis, Alexander Lanoszka and Hugo Meijer. 2019. “Nodal defence: the changing structure of U.S. alliance systems in Europe and East Asia.”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 Sven Sakkov. 2019. “Why the Baltics matter Defending NATO’s Northern-Eastern border.” *NDC Policy Brief*. No. 13.
- Veebel Vlijar. 2018. “NATO options and dilemmas for deterring Russia in the Baltic States.” *Defence Studies*. Vol. 18. No. 2.
- Veebel, Vlijar, Zdzisław Sliwa. 2019. “Kaliningrad, the Suwalki gap and Russia’s ambitions in the Baltic Regio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2. No. 3.
- Veebel, Vlijar, Illimar Ploom. 2019. “Are the Baltic States and NATO on the right path in deterring Russia in the Baltic?.” *Defense & Security Analysis*. Vol. 35. No. 4.

러시아 논문

- А. Пахомычев. Б. Ташлыков. 2006. “Воруженные силы Грузии: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Ии Тенденции их Развития.” *зарубежное военное обозрение*. No. 5 (710).
- Рыжкин, Михаил. 2014. “Зачем России нужен Крым?” <https://commons.com.ua/uk/zachem-rossii-nuzhen-krym/> (검색일: 2019. 4. 23).
- Панов, Валерий. 2012. “О роли Крыма в реализации гео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ланов США и НАТО.” *ОКО Планеты*. March 7. <https://oko-planet.su/politik/politikmir/105811-o-rol-i-kryma-v-realizacii-geostrategicheskikh-planov-ssha-i-nato.html> (검색일: 2019. 4. 23).
- Петров, В.П.. “Военно-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Крыма.” *СВ-АСТУР*. <https://svastour.ru/articles/puteshestviya/rossiya/krym/strategicheskoe-znachenie-kryma-dlya-rossii.html> (검색일: 2019. 4. 23).

영어 기사

- Antidze, Margarita. 2007. “Russia closes last military base in Georgia.” *Reuters*. Nov. 14. <https://www.reuters.com/article/us-georgia-russia-bases/russia-closes-last-military-base-in-georgia-idUSL1387605220071113> (검색일: 2019. 4. 11).
- NATO. 2017. “«Запад-2017» и евроатлантическ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Вестник НАТО*. December. 14. <https://www.nato.int/docu/review/2017/also-in-2017/zapad-2017-and-euro-atlantic-security-military-exercise-strategic-russia/RU/index.htm> (검색일: 2019. 5. 10).
- “NATO installs X-band radar in Turkey to monitor Iran missile launches.” *WorldTribune*. January 18. 2012. <https://www.worldtribune.com/archives/nato-installs-x-band-radar-in-turkey-to-monitor-iran-missile-launches/> (검색일: 2019. 5. 17).
- “Putin to take part in CSTO Collective Security Council meeting in Minsk” *TASS*. Nov. 13. 2017. <http://tass.com/politics/978172> (검색일: 2019. 5. 16)

러시아어 기사

- Мухин, Владимир, Виктор Мясников. 2006. “Обозреватель «Независимого военного обозрения» ‘Кавказ в огненном кольце учени.’”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July 14. http://nvo.ng.ru/forces/2006-07-14/1_kavkaz.html (검색일: 2019. 5. 6).
- Дмитри, Рогозин. 2008. “НАТО и Россия. Наш ответ на угрозы Запада.” *ЛитМир - Электро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https://www.litmir.me/br/?b=277746&p=8> (검색일: 2019. 4. 17).
- “Круп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Кавказ-2008» проходят на юге России.” *ПЕРВЫЙ КАНАЛ*. July 20. 2008. https://www.1tv.ru/news/2008-07-20/186261-krupnye_voennye_ucheniya_kavkaz_2008_prohodyat_na_yuge_rossii (검색일: 2019. 4. 23).
- “Крым Имеет Небольшо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ВИФ России-The Washington Post.” *Центр*. March 17. 2014. <http://eurasian-defence.ru/?q=node/30010> (검색일: 2019. 4. 23).
-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прошли крупные маневры.” *iz.ru*. Mar 31. 2005. <http://region15.ru/na-severnom-kavkaze-proshli-krupnye-manevry/> (검색일: 2019. 5. 6).
- “Новости СНГ.” *ВПК*. July 12. 2006. <https://vpk-news.ru/articles/4505> (검색일: 2019. 5. 21).
- “Россия начала масштаб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на Кавказе.” *iz.ru*. July 15. 2008. <https://iz.ru/news/430083> (검색일: 2019. 5. 6).
- “Учения “Кавказский рубеж-2007” вступили в завершающую фазу.” *REGNUM*. July 11. 2007. <https://regnum.ru/news/855498.html> (검색일: 2019. 4. 23).

[English Abstract]

The Limits of Russia's Military Capability during the Post-Cold War Era.

AHN Sungkyoo | Visiting Fellow, Institute of European Studies

European concern about Russia's capability to launch a military offensive is growing even though Russia's conventional and nuclear power have been reduced drastically during the post-cold war era. Russia's conventional capability in 2016 was 30-40% of the levels in 1992. Russia sought regional military hegemony, nevertheless, and compensated for those cuts by increasing military exercises, reorganization, forward deployment of offensive forces and enhancing the cohesion of CSTO members. These measures have been perceived by West as signs of a hegemonic ambition to support an expansionist policy. Yet Russia does not have a viable offensive capability. While the attacks on Georgia and Ukraine undermined those countries' sovereignty, this type of aggression is more accurately considered a deterrence measure by punishment-retaliation to compensate for Russia's weak hegemonic potential. Russia will remain a weak regional hegemon with only a relatively powerful military force. It will continue offensive, low-intensity hybrid military activities and the level of such aggression will intensify if Europe is not prepared to respond with greater will and readiness.

Keywords Russia, Distribution of Power, Deterrence, Incomplete Military Hegemony, Expansion of Hegemony
--

논문투고일: 2020.3.10. / 심사의뢰일: 2020.3.17. / 게재확정일: 2020.3.25.